

미국 민주당, ‘공화당 텃밭’ 텍사스서 승리…트럼프 ‘위기’

주상원 보선서 민주 14%p차 낙승…텍사스 연방하원 보선도 승리
접경주 공화당 패배…이민단속 총격 미국인 사망 사건 민심 반영

미국 공화당의 텃밭 선거구인 텍사스주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뉴욕시장,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승리 이후 지역 보궐선거에서도 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의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텍사스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테일러 레메트가 공화당의 리 웬즈겐스 후보를 상대로 14%포인트 차 낙승을 거뒀다.

텍사스는 공화당이 주정부와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레메트가 이긴 선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17%포인트 차로 이겼을 정도로 안정적인 공화당 텃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웬즈겐스 후보에 대해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성공한 기업가이자, 자신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매우 훌륭한 지지자”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후보가 크게 이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켈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의장은 “민주

당은 역사적인, 기대 이상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기세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패한 웬즈겐스 후보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승리는 지역 및 전국의 공화당원들에 대한 “경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텍사스주는 멕시코와의 접경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여젠다인 고강도 불법 이민자 단속과 직결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예상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의해 중북부 미네소타주에서 미국인 2명이 지난달 사망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온 이민 정책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같은 날 치러진 텍사스주 연방하원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당선됐다.

민주당이 텍사스주에서 연방하원 의석을 추가하면서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가 약해지게 됐다.

18선거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메네피는 다른 민주당 후보인 어맨다 에드워즈를 상대로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

18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실베스터 터너 전 하원 의원이 작년 3월에 숨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공석이였다.



미 텍사스주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31일(현지시간) 휴스턴의 더 포스트 휴스턴에서 열린 개표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메네피는 내년 1월까지인 터너 전 의원의 잔여 임기 동안 하원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메네피는 선거 기간 보편적인 건강보험을 공약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이끄는 크리스티 님 국 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이 1

석을 늘리면서 앞으로 공화당은 하원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의 이탈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총 435석인 하원은 현재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이며 텍사스주 18선거구를 포함해 4석이 공석이다. 메네피 의원이 취임하면 공화당과 민주당

의 의석 차가 5석에서 4석으로 줄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텍사스주 선거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무관하다. 텍사스 지역 선거”라며 “나는 17%포인트 차로 이겼고, 이 사람은 졌다. 그런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금값 12년 반 만에 최대 폭락…中 투기자금 이탈

지난달 30일 9.0% 급락…2013년 4월 이후 최대
은값 27.7% 폭락…소형 시장 특성에 변동성 확대

지난달 30일 기록한 국제 금값 폭락은 12년 반 만에 최대 하락률이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 현물 종가는 트로이온스당 4894.23달러로, 전장 대비 9.0% 급락했다. 2013년 4월 15일(-9.1%) 이후 하루 최대 하락률이다. 당시 하락률은 1980년 2월 이후 33년 만의 최대 수준이었다.

금값은 2002년(280달러)부터 2011년 9월(1920.30달러)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까지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정점을 찍은 지 1년 6개월 만에 9.1% 폭락세로 1348달러까지 주저앉았다.

2013년 당시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중국이 국제 기축통화를 놓고 달러화와 통화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금값을 천정부지로 밀어 올렸다.

그러나 그해 4월 15일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8%)를 크게 밑도는 7.7%로 발표되자 금값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중국 등 신흥

국들의 경제 성장이 주춤하면서 이들 국가 중앙은행의 금 매수 가능성이 부정적으로 점쳐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재정 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금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금값을 끌어내리던 와중이었다.

아울러 이미 금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심리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3년 4월 1348달러까지 떨어진 금값은 2013년 말(1201달러), 2014년 말(1184달러), 2015년 말(1061달러)까지 저점을 계속 낮췄다.

그러다가 2024년(상승률 27%)과 2025년(64%)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폭락 직전까지 25% 급등했다. 장중 5595달러까지 치솟았다.

2024년 이후 금 밸리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매입, 성장지수펀드로의 자금 유입,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잇따른 지정학적 긴장 등에 힘입었다.

지난해에는 투자자들이 이른바 ‘다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거 뛰어들면서 금 밸리를 가속했다.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잇단 지정학적 긴장 등이 달러화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달러화 가치는 무려 8% 하락했다. 2017년 이후 최악이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금값 밸리는 한층 더 광란에 가까운 속도를 보였다.

블룸버그는 개인부터 원자재 시장에 발을 들인 대형 주식형 펀드에 이르기까지 중국 투기자금의 대규모 매수 물결이 이런 광란의 속도를 주도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덜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되는 케빈 위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에 중국 투자자들이 차의 실현에 나서면서 폭락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츠의 원자재 책임자를 지낸 알렉산더 캄벨은 “중국이 팔았고, 이제 우리는 그 후폭풍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변동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곳은 은 시장이었다. 은 시장은 약 980억달러에 불과하다. 7천870억



일 자민당, 총선 압승 전망
아사히신문, 중반 판세 분석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8일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중의원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의석을 차지하는 등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37만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선거전 중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과반 의석(233석)을 크게 웃돌 기세이며 연립 일본유신회와 함께 전체 여당 의석이 300석 이상도 엿볼 수 있다고 2일 보도했다.

분석 결과 자민당은 292석 전후(278~306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거 공시 전 자민당의 의석은 198석이였다. 연립 일본유신회의 의석수는 32석 전후(25~38석)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중의원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여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여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가결할 수 있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2024 IS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